

# 《晨報副鐫》에 나타난 지식인의 농민과 군벌에 대한 인식태도 고찰

- 河植三과 徐玉諾을 중심으로

이희현\*

---

## ◁ 목 차 ▷

- I. 도입부
  - II. 농민에 대한 인식
    - 1. 목가적 풍경의 농촌과 평민교육운동
    - 2. 河植三의 경우: 향수적 서정에서도 현실을 노래할 줄 알다
  - III. 군벌에 대한 인식
    - 1. 폭력적 현실에 대한 침묵과 군대감축운동
    - 2. 徐玉諾의 경우: 시대적 비극을 절규할 줄 알다
  - IV. 나가며
- 

## I. 도입부

본 연구는 《晨報副鐫》<sup>1)</sup>을 통해 1920년대 베이징 지식인의 농민과 군벌에 대한 인식태도를 고찰함에 목적을 둔다. 1920년대 베이징은 정치구심력 약화에 따른 북

---

\* 경기대 중어중문학과 조교수

1) 《晨報副鐫》은 1921년 10월부터 1928년 6월까지 베이징에서 발간된 《晨報》 별도 발행 문화부록이다. 본래 《晨報》의 전신은 《晨鐘報》로 梁啓超 등이 주편을 맡아 발행한 進步黨의 기관신문이었다. 《晨報》는 1916년 일본에서 귀국한李大釗에게 신문의 第7版을 별도 칼럼으로 할애해 주었는데, 이를 계기로李大釗는 마르크시즘과 러시아 정치 내용 등을 중국에 소개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제7판은 1919년 2월 7일 《晨報副刊》이란 이름으로 제반 문화 칼럼을 실었다가, 1921년 10월 4版으로 구성된 한 장짜리의 독립된 별도 부록으로 발행되면서 《晨報副鐫》이란 이름을 얻게 된 것이다. (覃寶鳳, 103쪽) 《晨報》의 문화면이란 의미에서 《晨報副鐫》을 《晨報副刊》으로 통용하지만 문화면의 정식명칭이 《晨報副鐫》임으로 본고에서는 《晨報副鐫》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희현, 〈《晨報副刊》의 新詩 동향〉, 《중국문학연구》, 한국중문학회, 2014.8, 45쪽)

양군벌을 둘러싼 내전과 남북정권의 대치 속 권력의 각축으로 혼란했다. 기존 농민에 관한 연구는 주로 광둥정부 중심의 후난농민운동 전개 등에 초점이 맞춰졌고, 군벌에 관한 연구는 주로 군벌 자체의 패권전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에 《晨報副鐫》을 통해 북양정권 관할 하에서 활동했던 지식인들의 농민에 대한 시각은 어떠했으며, 또한 군벌 정치에 대해 그들은 어떠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는지를 고찰하는 것은 나름 의미 있는 연구가 되리라 생각한다.

본고에서 지식인의 농민과 군벌에 대한 인식을 동시에 다루고자하는 것은 1920년대 당시 농민과 군벌 두 계층이 갖고 있었던 특수한 상호연관성에 기인한다. 당시 중국 전역에 군벌이 형성되어 있었지만 특히 베이징은 북양군벌의 중심지였다는 점에서 북방 농민의 삶은 더욱 군벌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예컨대 군벌의 형성, 유지, 확장에 필요한 군비조달은 대부분 농민 토지의 강점과 세금징수 혹은 약탈을 통해 이루어졌고, 노역은 농민 강제 징집을 통해 조달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1920년대 북방은 남방의 농민이 대부분이 소작농이었던 것에 비해 자작농 중심의 농업체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북방은 남방 지역에 비해 토지의 생산성이 낮고 생태적 환경이 농업생산에 적합하지 않아 토지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성이 높지 않았다.<sup>2)</sup> 다시 말해 1920년대 중심 권력이 부재하는 상황 아래에서 군벌의 전횡에 가장 취약한 계층은 농민이었다고 한다면, 북양군벌 관할 하의 북방 농민의 상황은 더욱 열악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晨報副鐫》의 문학작품에는 사랑, 자연, 철학 등을 주제로 한 것들이 대부분이고 농민과 군벌을 제재로 삼은 작품은 많지 않은 편이다. 또한 《晨報副鐫》에 발표된 기고문, 학술논문, 연설문 등에도 농민문제와 군벌문제와 관련한 내용은 정치, 과학, 종교, 가정 등과 비교한다면 상당히 적은 편수라 할 수 있다. 1920년대 당시 군벌의 난립, 외세 열강의 간섭 등 안팎의 요소로 절대 다수의 농민계층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농민과 군벌에 관한 문장이 적었다는 사실에서 의외성을 느끼게 되었고, 그렇게 된 과정을 그들의 기고문을 통해 비판적인 사유로 분석해 가고자 한다.

본고는 지식인의 농민과 군벌에 대한 인식을 고찰하기 위해 두 가지 방면으로 분

2) 天野元之助, 《中國農業經濟論》第1卷, 東京: 龍溪書舎, 1978; 강경락, 〈1920-30년대 河北 농촌사회의 변화〉, 《한국중국현대사연구회》, 45쪽 재인용.

석하고자 한다. 하나는 《晨報副鐫》의 문학작품을 통해서 베이징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지식인들의 농민과 군벌에 대한 형상사유를 분석하여 그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 다른 하나는 기사문과 논설문 등을 통해서 지식인들이 어떻게 농민문제와 군벌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는지, 그리고 그 한계가 무엇이었는지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 두 인물을 만나게 되었는데 河植三과 徐玉諾가 그들이다. 河植三의 경우 농민과 농촌을 소재로 한 작품을 비교적 많이 창작했는데, 그의 작품세계가 지니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徐玉諾의 경우 군벌 시대의 혼란상을 비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의 시대적 비극의식이 무엇에 기반을 둔 것인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II. 농민에 대한 인식

### 1. 목가적 풍경의 농촌과 평민교육운동

1920년대 농민의 생활터전인 농촌의 상황은 열악했다. 1920년과 1921년에는 연속적으로 엄청난 기근이 들어 북중국은 피폐해졌고, 수백만 명에 이르는 농민은 아사했다.<sup>3)</sup> 예컨대 1924년 ‘江浙戰爭’ 당시 張作霖이 直系를 비난하면서 浙江 盧永祥을 응원하는 전문에 「금년 천재지변으로 기아에 허덕이는 백성들이 들판을 메우고 있다」<sup>4)</sup>고 한 내용을 통해서도 당시 연이은 자연재해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1925년 湖北省에서도 극심한 가뭄으로 먹을 것이 부족해 굶주린 농민들이 양곡을 탈취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했다. 지주들은 군대를 동원해 양곡 탈취를 막고 쌓아두다가 곡물가격이 폭등하면 비싸게 팔아 폭리를 취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대다수 농민들은 초근목피와 ‘觀音土’<sup>5)</sup>로 연명할 수밖에 없었으며, 심지어 어린아이나 여자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농민도 생겨났다.<sup>6)</sup> 적절한 구휼정책을 펼칠 안

3) 조너선D. 스펜스/ 정영무, 《천안문》, 이산, 2002년, 204쪽 참조.

4) 徐徹/ 유가원 역, 《장작탑》, 아지랑이, 2001년, 253쪽 참조.

5) ‘관음토’란 도자기 만들 때 사용하는 주원료가 되며, 극심한 기근 상태 시 배고픔을 잊기 위한 식용한 흙의 일종.

6) 〈湖北省農民運動史〉, 《中國農民》第9期, 1926, 12쪽 (유용태, 《지식청년과 농민사회의

정된 정부가 없는 상황 하에서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는 농민들에게 거의 재앙에 가까웠을 것이다.

① 물레방아 소리/ 내 조용한 잠을 방해했다/ 칠일 동안의 홍수/ ...../ 홍수에 익사할 지경이구나!// 나의 친애하는 농부가/ 금년의 수확을 예측할 수 없는데/ 누가 그대에게 일 년 전 피땀을 먼저 지불하라고 하는가? 〈수차 소리〉<sup>7)</sup>의 일부

② ...../ “요 며칠 지속된 홍수에 바람까지 더해/ 엉망진창이 되었지요, 금년의 이른 계화나무는 끝장 난 셈이죠.”// 아닌 게 아니라 여기 계화나무들은 내게 기쁨을 줄 수 없었다/ 나뭇가지 위에는 시든 꽃봉오리만 보였는데/ 처참했다, 아, 뜻밖의 재난이여!/ 어째서 도처가 말라 비틀어져 있는가/ 이번 작황으로는 살아내기가 쉽지 않겠구나! 이번 작황으로 살아내기가 쉽지 않겠구나! 〈이번 작황으로는 살아내기가 쉽지 않겠구나〉<sup>8)</sup>의 일부

③ 극심한 가뭄 오래 되었다/ 경건한 기도 올리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 회화나무 그늘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긴 그 늙은 농부/ 그가 무의미하게 힘껏 담뱃대를 빨 때/ 자신도 모르게 처연한 눈물 옷을 적신다 〈향촌 생활의 음미·八〉<sup>9)</sup>의 전문

세 편의 작품은 모두 1920년대 초반 자연재해와 이로 인한 농민의 고통을 다루고 있다. ①의 경우 문학연구회 潘垂統의 작품으로, ‘홍수에 익사할 지경’인 농부를 구제해줄 생각은 고사하고 오히려 그들의 ‘피땀’을 착취해가려는 권력자들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②는 徐志摩의 작품으로 ‘며칠 동안 내린 홍수와 ‘바람’으로 ‘계

혁명》, 문학과 지성사, 2004년, 185쪽에서 재인용)

7) 水車聲呀,/ 你擾了我清夢./ 七天的大雨,/ ...../ 要淹死在大水裏了!// 我親愛的農夫,/ 未卜今年的收穫./ 誰叫你先付隔年底汗血? (潘垂統 〈水車聲〉《晨報副鐫》第1卷 1921.10.14.)

8) ...../ 這幾天連綿的大雨, 外加風,/ 弄得這稀糟, 今年的早桂就算完了.”// 果然這桂子林不能給我點子歡喜/ 枝上只見焦萎的細藥,/ 看着悽慘, 唉, 無妄的災!/ 爲什麼這到處憔悴?/ 這年頭活着不易! 這年頭活着不易! (鶴(徐志摩) 〈這年頭活着不易〉《晨報副鐫》第10卷 1925.10.10.)

9) 亢旱太久了,/ 有誰不深深的作虔誠的祈禱呢!/ 那槐陰下獨坐着渾然沈思的老農-/ 當他無聊的力吸煙管時,/ 却禁不住淒然的漏痕露衣! (伯方 〈鄉村生活的回味·八〉《晨報副鐫》第8卷 1925.2.22.)

화나무 '작황'이 좋지 않아 향후 '치참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西湖 농촌 한 '향촌 아가씨'의 탄식을 빌어 노래하고 있다. ①과 ②의 작품이 홍수로 인한 농촌의 고통을 표현했다면, ③의 시는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 받는 농민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드리는 '경건한 기도'의 기우제도 아무런 소용없이 '극심한 가뭄'은 지속되고 결국 '늪은 농부'는 '처연한 눈물'을 흘리고 만다는 내용의 이 시는, 자연재해 앞에서 비참하고 무기력한 농민의 처지를 표현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은 지식인들이 1920년대의 정치적 혼란과 더불어 자주 목도할 수 있었던 다반사의 현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목할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晨報副鐫》에는 그와 관련한 작품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위의 세 작품은 《晨報副鐫》의 지극히 예외적인 시라는 점이다. 게다가 1920년대 베이징에서 활동하던 지식인들이 대개 고향을 떠나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청년들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농민의 고통스러운 삶을 포착하여 형상화한 작품의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은 다방면에서 재고의 여지를 준다. 그렇다면 한다면 《晨報副鐫》의 농민 관련 작품에는 농촌의 모습이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으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 앞에서 익숙한 웃음이 맞이하네/ ...../ 비록 나그네의 얼굴 풍진으로 가득 하지만/ 그대 시냇물의 연꽃에는 향기로운 바람 훑날리고/ 노랫소리는 맑은 황금 빛 밭이랑에 울려 퍼지며/ 시냇물 흐르는 가장자리에는 여전히 버드나무 늘어져 있는데/ 버드나무 그늘 아래 고깃배 한 척 흔들거리는 것을 봐/ 들어봐, 우물가에 퍽퍽 빨래하는 소리와/ 밥 짓는 연기에 멀리서 돌아오라고 부르는 소리를/ 무당 굿하는 징소리 벼 말리는 마당에서 울리고/ 피리소리는 소 등 위에서 아득하게 들려오는 것을/ ..... 〈고향〉<sup>10)</sup>의 일부

위 시는 다른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모처럼 고향에 돌아오게 된 시인이 마을 입구에서부터 느끼는 기쁨을 '나그네'의 환향을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고향사람들과 아름다운 풍경들로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는 작품이다. 즉, 오랜만에 돌아온 고향에

10) ...../ 前面迎出些熱的笑容/ ...../ 雖然遊子是風塵滿面/ 你瞧溪荷還飄着香風./ 歌聲響遍澄黃的田隴./ 溪流邊依舊垂着楊柳./ 柳蔭下搖過一隻漁舟./ 聽呀, 井欄邊嘖嘖洗衣, 炊煙中遠遠一片呼歸./ 算命的羅兒敲響稻場./ 笛聲悠揚在水牛背上./ ..... 〈饒孟侃 〈家鄉〉《晨報副鐫》第11卷 1926.4.22.)

는 ‘익숙한 웃음’으로 ‘맞이해주는’ 고향사람들과 ‘연꽃 향기바람’, 늘어져 있는 ‘버드 나무’, ‘나무 그늘 아래 고깃배 한 척’, ‘밥 짓는 연기’, ‘소 등’의 ‘피리소리’ 등 정겹고 평화로운 풍경이 있다. 물론 ‘고향’이 이렇게 따뜻하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진정한 이유는 ‘부모님이 계신 곳’<sup>11)</sup>이자, ‘벼 향기 가득한 들판을/ 표표히 걸어와/ 아름다운 풀꽃 한 송이 꺾어 내게 준’<sup>12)</sup>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듯 고향이란 타지에서 오랜 세월 살아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늘 되돌아가고 싶은 따뜻한 정서가 담겨 있다.

“이거 그림에 담을 수 있겠는데.” 친구가 말한다/ 정말로, 이거 정말로 사실 그림에 담을 수 있겠다/ 두 아이가 거무스레한 나귀를 타고/ 저녁이 번지는 나무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도시 밖·四〉<sup>13)</sup>의 일부

饒孟侃의 〈고향〉이 따뜻하고 익숙한 풍경으로서의 고향을 보여주고 있다면, 焦菊隱의 위 작품은 목가적 전원시의 전형을 보여준다. ‘아이’와 ‘나귀’ 그리고 ‘저녁이 번지는 나무다리’야말로 마음을 순수하게 정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목가적 배합이다. 그래서인지 이러한 목가적 풍경이 《晨報副鐫》의 농민 관련 시에 주요 소재로 등장하고 있다. 예컨대, 「농부의 거처 찾을 수 없고/ 무궁화나무 울타리 아래/ 어미닭이 병아리를 데리고 먹이 찾는 것만 보이네」<sup>14)</sup>라든지, 「저녁이 내린 농촌/ 소 등 위 목동의 피리소리만/ 동산의 초승달을 불러 배회하는 풍경」<sup>15)</sup> 등 역시 목가적 서정의 감수성을 전달하고 있는 작품들이다.

농촌에는 도시의 분주한 일상과 대비되는 ‘낙원의 오솔길’과 같은 여유와 평화로움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 예컨대 「계곡의 빨래하는 아낙들의 웃음소리」<sup>16)</sup>라

11) 愛我的莫過於爹娘./ 我如何的孤負了他們的心腸./ 別此父母之邦?/ 臨行, 爹娘聲聲吩咐早還鄉./ 不知風雲亦變化無常./ ..... (周靈均 〈別我爹娘〉《晨報副鐫》第8卷 1925.1.5.)

12) 稻香瀰漫的田野./ 伊飄飄的走來./ 摘了一朵美麗的草花贈我. (潘漠華 〈雜詩·稻香〉《晨報副鐫》第2卷 1922.4.6.)

13) “這可以入畫!” 朋友說./ 當真, 這當真可以入畫-/ 兩個孩子騎着黑黝的驢子./ 橫過這暮氣瀰漫的板橋./ ..... (焦菊隱 〈城外·四〉《晨報副鐫》第4卷 1923.1.29.)

14) 找不着農人的住處./ 只見槿籬下./ 母鷄帶着鷄兒在覓食./ ..... (楊晶華 〈田園雜詩·一〉《晨報副鐫》第7卷 1924.7.11.)

15) 楊晶華 〈田園雜詩·三〉《晨報副鐫》第7卷 1924.7.11.

든가, 〈「콩밭을 수확할 때의 찬미」<sup>17)</sup> 혹은 「밭일을 다 끝낸 후의 즐거움」<sup>18)</sup> 등은 농촌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전원의 행복일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농촌에 이러한 전원의 고요하고 평화로운 목가적 풍경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목가풍의 전원시만 있다면, 「아침을 재촉하는 새벽닭 소리를 들으며 서둘러 밭에 가야하는 농부들」<sup>19)</sup>의 고단한 삶은 쉽게 捨象되고 농촌의 실제적 모습은 왜곡될 것이다. 《晨報副鐫》에는 농민과 관련한 작품 수가 많지 않은데 그나마 있는 작품들도 이렇게 목가적인 전원시 형태가 대부분이다. 즉, 농민의 힘든 농사노동과 제반 어려운 현실은 捨象된 채, 아름답고 순수한 목가풍의 노래들이 주선율을 이룬 비현실적 전원시가 대부분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쩌서 1920년대 베이징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지식인들은 이처럼 현실적인 농민의 삶을 그려내지 않고 비현실적인 목가적 풍경 표현에 치중했던 것일까? 그 원인은 대략 몇 가지 키워드로 추론할 수 있다.

첫째, 향상성이다. 역사적으로 농민은 늘 곤궁하고 힘든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지식인들은 농민의 열악한 삶에 대해 별다른 자각 능력을 갖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지식인들에게 「고향 정경은/ 뇌 속에서 사라질 수 없게 깊이 각인」<sup>20)</sup>되어 있어 농민의 고된 농사노동, 반복적인 자연재해, 수탈 등에 대해 비판적 의식을 가질 만한 현실인식 능력이 결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무관심이다. 자신의 삶에 지친 지식인에게 농민을 생각할 여력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고향을 떠나 도시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이들 지식인들에게 고향은 단지 자신의 지친 삶에 위로가 되어 줄 수 있는 향토서정의 공간으로만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晨報副鐫》에는 가난, 병, 죽음 등에 관한 제재가 자주 등장하는데<sup>21)</sup> 이는 기록치 않았던 지식인 계층의 삶을 반영한다.

16) 楊晶華 〈田園雜詩·二〉《晨報副鐫》第7卷 1924.7.11.

17) 〈鄉村生活的回味·九〉《晨報副鐫》第8卷 1925.2.22. 伯方

18) 〈鄉村生活的回味·十〉《晨報副鐫》第8卷 1925.2.22. 伯方

19) 〈鄉村生活的回味·一〉《晨報副鐫》第8卷 1925.2.22. 伯方

20) 故鄉的情景/ 深刻在腦海裏不能磨滅呵! (CY女士 〈故鄉·一〉《晨報副鐫》第5卷 1923.8.10.)

21) 《晨報副鐫》에서 가난, 병 등을 다룬 시작품은 70여 작품으로 전체 750여 편의 9% 가량 차지한다. (이희현, 〈《晨報副鐫》의 新詩 동향〉, 《중국문학연구》, 한국중문학회, 2014.8, 50쪽 참조)

셋째, 인문학적 공감능력의 부족 때문이다. 문학은 시대를 읽는 차가운 성찰의 능력, 인간에 대한 따뜻한 공감능력, 그것을 버무려 낼 수 있는 미적 표현능력 등의 요소로 탄생한다. 그중에서도 인간에 대한 따뜻한 공감능력이 문학의 중심 자장이라고 볼 때, 《晨報副鐫》의 작품에는 바로 인간에 대한 따뜻한 공감능력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에 도처에서 쉽게 목도할 수 있었던 민중의 고통을 문학으로 체화하지 못했던 것 같다. 물론 목가적 풍경을 노래한 작품이라고 해서 모두 진솔한 생명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晨報副鐫》의 농민 관련 작품에는 농민의 힘든 삶을 반영하지 못한 채 진부한 목가적 풍경만을 노래한 작품들이 주를 이룬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는 郁達夫가 「농민의 비참하면서 소박한 사실을 그대로 쓰고, 농민을 위해 하소연하는 글」을 써야한다고 한 문예관<sup>22)</sup>에 비추어 볼 때 대비되는 측면이 분명 존재하는 것이다.

1920년대 중반 국민혁명의 분위기가 무르익기 시작하면서 《晨報副鐫》에는 그나마 있던 농민 관련 작품은 거의 게재되지 않는다. 대신 당시 농촌 상황을 리포트 형태로 소개하거나 농민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안을 제시하는 기사문과 학술문 등이 발표되기 시작했다. 이들 기고문들은 1924년 11월 1일자에 연재한 裝文中의 〈평민 천자 과목을 공부하다〉<sup>23)</sup>를 제외한다면, 대체로 1926년 7월 이후 《晨報副鐫·社會》란에 집중적으로 게재되고 있어 이들 농민문제 관련 글들이 국민혁명의 시류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1924년 이전에는 주로 노동운동에 주의를 기울일 뿐 농민조직 활동을 적극 전개하지 않다가 1924년 국민혁명운동의 일환으로 농민운동을 주목했기 때문이다.<sup>24)</sup> 어쨌든 이 시기 지식인들에게 「농민이란 정치능력이 부족한 계층」<sup>25)</sup>으로 「생활, 교육, 농업, 향촌사회경제 등 다방면에서 무능하여 절대적으로 계몽이 필요한 대상」<sup>26)</sup>으로 인식되었다는 점이다.

당시 농촌 관련 기고문은 대체로 농촌 현지상황을 르포 형태로 보고하는 기사문과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논설문 등으로 나뉠 수 있다. 첫째, 농

22) 이윤희, 《1920년대 중국 향토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2, 58쪽 참조.

23) 裝文中 〈讀平民千字課〉《晨報副鐫》第7卷 1924.11.1.

24) 유용태, 《지식청년과 농민사회의 혁명》, 문학과 지성사, 2004년, 175쪽 참조.

25) 江德奎 〈青年之民間運動〉《晨報副鐫·社會》第53號 第12卷 1926.10.26.

26) 江德奎 〈青年之民間運動〉《晨報副鐫·社會》53號 第12卷 1926.10.26.

촌 현지상황을 보고하는 기사문으로는 농촌 아이들의 놀이문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향토 아동 놀이 조사〉<sup>27)</sup>, 直隸 남부의 保定에서 자신이 직접 체험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晏陽初의 〈어느 향촌 평민교육사업〉<sup>28)</sup>, 保定의 농업 현황을 보고하고 있는 馮銳의 〈바오딩 定縣의 농업상황 고찰 이후〉<sup>29)</sup>, 농민분포상황, 농민생산 수입 등 총 14개 항목<sup>30)</sup>으로 나누어 농민의 생산, 소비, 의식주 등의 상황을 상세하게 보고하고 있는 晨光의 〈定縣의 농민생활(특별조사)〉<sup>31)</sup> 등이 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점은 保定<sup>32)</sup> 定縣<sup>33)</sup>이 농촌 상황 이해의 표본 장소로 삼아 여러 사람들에 의해 자주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晨光은 〈定縣의 농민생활(특별조사)〉 앞머리에서 「중국은 농업을 주종으로 삼기에 농민생활 상황에 대한 상세한 고찰이 필요한데, 定縣은 直隸 중부에 위치하며 경제상황과 풍속 방면에서 直隸를 대표한다」<sup>34)</sup>고 밝히고 있다. 保定 定縣 이외의 다른 농촌에 대한 사례 보고가 적어 전체적인 북방 농촌 상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겠지만, 당시 保定 定縣이 直隸를 대표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당시 농촌 상황을 이해하는데 사료적 가치가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둘째,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 논설문 가운데는 평민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글<sup>35)</sup>과 농업합작제도 실시에 대한 글<sup>36)</sup> 등이 있다. 이 가운데 向雲龍

27) 夏家驅 〈鄉土兒童遊戲調查〉《晨報副鐫·家庭》第11卷 1926.6.27.

28) 晏陽初 〈一個鄉村平民教育工作〉《晨報副鐫·社會43號》第12卷 1926.8.17.

29) 馮銳 〈考查保定定縣農業狀況之後〉《晨報副鐫·社會60號》第12卷 1926.12.14.

30) 14항목은 농민분포현황, 농민생산수입, 농민납세현황 및 군사영향(공산제 하의 농민부담 비교), 농민소비현황 및 자녀 교육비 부담, 농민 의식주 및 최저생활비, 소작농과 지주의 관계, 고농의 대우, 농민의 작업 상황 및 농구, 농민합작사와 교육, 농민의료상황, 농촌부녀자와 가정수공업, 농촌 관혼상제 예절, 농민의 유희조직, 농민의 명절과 신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1) 晨光 〈定縣之農民生活(特別調查)〉《晨報副鐫》第14卷 1927.8.8.

32) 華北 평원 북부, 河北省 중부에 위치.

33) 현재 河北 定州.

34) 晨光 〈定縣之農民生活(特別調查)〉《晨報副鐫》第14卷 1927.8.8.

35) 張友仁 〈平民教育特刊·一〉《晨報副鐫·社會38號》第12卷 1926.7.13./ 賴成鎮 〈平民教育特刊·二〉《晨報副鐫·社會43號》第12卷 1926.8.17./ 晏陽初 〈平民教育特刊·三〉《晨報副鐫·社會47號》第12卷 1926.9.14./ 湯茂茹 〈平民教育特刊·四〉《晨報副鐫·社會51號》第12卷 1926.10.26/ 湯茂茹 〈平民教育特刊·五〉《晨報副鐫·社會55號》第12卷 1926.11.9./ 湯茂茹 〈平民教育特刊·五〉《晨報副鐫·社會60號》 1926.12.14./ 湯茂茹 〈平民教育特刊〉《晨報副鐫·社會65號》 第13卷

가 1927년 7월 14일, 7월 15일자의 글에서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합작이 중요한데 현재의 농민의 낮은 지식수준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농민에 대한 보편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sup>37)</sup>는 주장은 당시 농민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인들이 갖는 일반적 대안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晨光 역시 定縣의 〈농민생활(특별조사)〉에서 「농민 주도의 수매합작사가 없어 자체적으로 가격을 결정하지 못해 상인에 의해 가격이 조정되는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지적하면서, 농민교육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sup>38)</sup>고 농민교육을 농민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당시 농민교육은 평민교육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평민교육운동은李大鈞의 사상에 기반을 둔다. 1920년 초반에 '평민교육 강연단'이 조직한 베이징 대학 재학생들 근방 농촌지역으로 내려가李大鈞의 사상을 좇고자 했다.<sup>39)</sup> 그 중심인물 가운데 연양추가 있다. 그는 '우매, 가난, 허약, 이기심(愚窮弱私)'을 중화민족의 4대 병폐로 보고 1926년 '中華平民教育促進會'를 이끌고 定縣에 들어가 첫째, 문예교육으로 지력을 배양할 것, 둘째, 생계교육으로 생산력 촉진을 이끌 것, 셋째, 공민교육으로 단결력을 기를 것, 넷째, 위생교육으로 건강을 증진할 것 등을 평민교육의 실천 강령으로 주장했다.<sup>40)</sup> 아울러 그는 〈중화평민교육촉진회〉에서 「평민교육을 공론화하기 위해 자신이 유명 간행물인 《晨報副鐫》에 평민교육에 관한 특별 칼럼을 게재하기로 결정했다」<sup>41)</sup>고 밝히면서 향후 직업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글자 습득이 농민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하였다. 연이어 〈평민교육 총회에서 4월에 훈련 받은 후의 나의 감상〉에서는 「평민교육에 있어 노력하는 자세뿐 아니라 사전 준

1927.1.25./ 羅瑤 〈平民教育概論〉《晨報副鐫·社會65號》第13卷 1927.1.25./ 賴成鎮 〈平民教育的特性〉《晨報副鐫·社會71號》第13卷 1927.3.14./ 賴成鎮 〈平民教育的特性〉《晨報副鐫·社會72號》第13卷 1927.3.15./ 湯茂茹 〈平民教育特刊〉《晨報副鐫·社會72號》第13卷 1927.3.15./ 晏陽初 〈平民教育的精神〉《晨報副鐫·社會61號》第12卷 1926.12.21./ 向雲龍 〈農村教育問題〉《晨報副鐫》第14卷 1927.8.17.

36) 向雲龍 〈農業合作制度(一~七)〉《晨報副鐫》第14卷 1927.7.4.-7.15.

37) 向雲龍 〈農業合作制度(一~七)〉《晨報副鐫》第14卷 1927.7.4.-7.15.

38) 向雲龍 〈農業合作制度(一~七)〉《晨報副鐫》第14卷 1927.7.14.-7.15.

39) 조너선D. 스펜스/김희교, 《현대중국을 찾아서 1》, 이산, 1999년, 362쪽 참조.

40) 類啓蒙, 〈20世紀30年代定縣農民戲曲實驗〉: 《文學評論》2013.4, 74쪽 참조.

41) 晏陽初 〈中華平民教育促進會〉《晨報副鐫·社會38號》第12卷 1926.7.13.

비도 중요함」<sup>42)</sup>을 피력했다.

이외에 湯茂茹는 〈중화평민교육촉진회〉에서 「1921-1922년 사이 도시에서 시작한 평민교육이 향촌으로 보급되는 과정에 있는데, 이러한 평민교육이 4, 5년 후에는 그 결과물이 나올 것」<sup>43)</sup>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그는 「평민교육 효과뿐 아니라 목적, 절차, 소집정책, 교학도구, 교학방법 등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그중 주목할 점은 그가 「평민교육의 목적을 구국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하는데 두어야 한다」<sup>44)</sup>고 밝힌데 있다. 이러한 그의 견해는 농민 자체에 대한 궁극적 관심에서 출발하지 않고, '구국에 기여하는 신민 양성에 목표를 둔 것'이라는 점에서 1920년대 구국과 계몽의 양대 과제를 염두에 두었던 대다수 지식인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평민교육운동 가운데는 농민 자립도를 위한 순수한 목적으로 진행된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이러한 평민교육운동이 기존 소수의 향촌 권력자들에 의해 독점해 온 사회문화적 자원을 대중화하는데 일정정도 기여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晨報副鑄》의 농민문제 해결 방안 모색에 관한 기고문 역시 문장 편수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들도 대체로 시류의 담론에 편승한 측면이 강해, 당시 지식인들이 농민이 처한 통절한 현실적 고통을 얼마나 염두에 두고 농민문제를 접근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볼 여지를 남기는 것이다.

## 2. 河植三의 경우: 향수적 서정에서도 현실을 노래할 줄 알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晨報副鑄》에는 농민 관련 시가 비교적 적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목가적 전원시에 가까운 작품들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그중 다소 예외적인 인물이 있는데 바로 河植三(1899-1977)이라고 할 수 있다. 河植三은 문단에서 별로 관심을 받았던 인물이라고 할 수 없지만 본고에서 그를 주목하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점 때문이다. 즉, 그는 농촌 관련 작품을 비교적 많이 창작했을 뿐

42) 晏陽初 〈中華平民教育促進會〉《晨報副鑄·社會38號》第12卷 1926.7.13.

43) 〈平民教育特刊·五〉《晨報副鑄》. 사회55호 제12권 1926.11.9.

44) 〈平民教育特刊·五〉《晨報副鑄》. 사회55호 제12권 1926.11.9.

만 아니라, 전원 풍경의 농촌에 현실적인 농촌의 모습도 함께 녹여낼 줄 알았던 작품을 창작했다는 점에 있다. 何植三은 1899년 浙江 諸暨에서 태어나 1920년대에 베이징대학교에서 수학했다. 그는 당시 董秋芳、許欽文 등과 함께 春光社를 조직해 운영하기도 했으며, 魯迅, 郁達夫 등의 지도를 받기도 했다.<sup>45)</sup> 그의 대표시집으로는 《農家の草紫》<sup>46)</sup>가 있는데 여기에는 대략 50여 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 중 일부는 《晨報副鐫》에서 발표한 것도 있다. 周作人이 그의 시집 서문에 「향토적 분위기를 풍부하게 담고 있는 시인」<sup>47)</sup>이라고 써줄 정도로 河植三은 향토적 서정에 뛰어난 작품을 쓴 시인이다.

밭 사이 그늘 막에서 잠을 자면서 토란을 돌보러 가/ 꿈속에서 한 바탕씩 벼 향을 맡네 〈보조개·4〉<sup>48)</sup>의 일부

‘토란을 돌보러 갔다가’ 잠시 ‘그늘’에서 휴식 중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조차도 ‘벼 향을 맡는다’는 단순한 내용의 이 작품은, 그의 농사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과 농사에 대한 애정 어린 시선을 보여준다. 여기에 낭만적인 향토정서가 더해진다. 예컨대 ‘가랑비’ 내리 듯 뽕나무 잎을 갹아먹고 있는 ‘3령 누에’<sup>49)</sup>의 모습이라든지, ‘조용한 뜰/ 술 담은 가죽부대의 용마루에/ 구구거리는 비둘기’<sup>50)</sup>의 모습이라든지, ‘이름 모를 풀잎과 ‘앵두’가 수북하게 담겨 있는 ‘작은 버드나무 광주리’<sup>51)</sup> 등의 묘사에서는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고향 서정을 느낄 수 있다. 사실 그의 고향 정서를 담은 시들은 화려하거나 독창적이지 않다. 오히려 평범하게 느껴지기까지 한다. 예컨대 〈보조개·5〉<sup>52)</sup>에서 ‘밤낮없이 쥐가 시끄럽게 돌아다니자’ ‘시내에 가는 이웃

45) www.daidu.com 참조.

46) 시집 《農家の草紫》는 1924년 묶였다가 1929년 신시를 전문적으로 발행해주던 上海亞東圖書館에서 출판하였다. 周作人은 《論小詩》에서 우수한 소시의 예로 河植三의 〈農家短歌〉 등을 들기도 했다. (www.daidu.com 참조)

47) 河植三, 《農家の草紫》, 上海, 亞東圖書館, 1929.

48) 睡在田間的蓬廬去管水芋./ 在夢裡聞着陣陣的稻香. (〈笑渦·四〉《晨報副鐫》第3卷 1922.12.13.)

49) 三眠的蠶兒吃着葉兒./ 疑心屋外下微雨了. (〈笑渦·二〉《晨報副鐫》第3卷 1922.12.13.)

50) 沈靜的院落./ 鴉夷的屋脊./ 咕咕啼着的鴿子. (〈春之句·二〉《晨報副鐫》第4卷 1923.6.3.)

51) 小小柳筐裡./ 不知名的草葉./ 顆顆的櫻桃. (〈春之句〉《晨報副鐫》第4卷 1923.6.3.)

52) 蠶兒大了./ 耗子日夜的鬧了./ 特托隣人到市裡買小魚來/ 飼喂貓兒. (〈笑渦·五〉《晨

사람'에게 쥐를 잡을 '고양이에게 먹일 생선을 사다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은 시골의 소소한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하나의 장면일 것이다. 그런데 그의 시적 전달력은 바로 이러한 고향의 평범한 일상을 소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하면서도 동시에, 고향의 정취를 낭만적으로 전달할 줄 아는 시적 균형감에서 나온다.

① 아버지는 보리를 타작하고/ 어머니는 대를 묶는데/ 누이는 남은 보리를 줍고  
싹지 않아/ 울타리 아래 숨어서는/ 열심히 보리허수아비를 만들고 있구나 <보리  
타작마당에서>의 일부<sup>53)</sup>

② 저녁 밭에서 고단하게 귀가했다가도/ 누이의 보조개를 보면/ 하루의 노고가  
그 속에 녹아버린다 <보조개·1>의 전문<sup>54)</sup>

위의 작품에는 모두 '누이'가 등장하는데 시인의 '누이'에 대한 사랑이 각별했던 것 같다. '어린누이'는 '아버지는 보리를 타작하고/ 어머니는 대를 묶느라'고 온 가족이 모두 농사일에 바쁘는데, 주어오라는 '남은 보리' 대신 '울타리 아래 숨어/ 열심히 보리허수아비를 만들고 있는' 친진난만한 어린아이다. 이렇게 귀여운 '누이'는 사랑스런 '보조개'를 지니고 있는데, 사랑스런 '보조개'를 지닌 동생은 농사노동의 시름을 잊게 해주는 에너지원이다. 이처럼 시인에게 있어 고향은 따뜻한 가족이 있는 소중한 공간인 것이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힘든 농업 노동을 반복적으로 해야만 하는 고생스러운 공간이기도 하다.

새 곡식의 밥이 입에 있으니/ 예전의 노고가 생각나/ 즐거움의 눈물이 밥그릇  
안으로 흘러들어갔다 <농가 7수·7>의 전문<sup>55)</sup>

이처럼 농촌은 '예전의 노고' 없이는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새 곡식의 밥'을 얻을

報副鐫》第3卷 1922.12.13.)

53) 爸爸打大麥./ 媽媽捆麥稈./ 妹妹不願拾剩的麥頭./ 却躲在籬笆下./ 一心一意的做麥草人. (<麥場上>《晨報副鐫》第3卷 1922.11.2.)

54) 晚上從田間帶得勞苦歸家./ 看見妹妹的笑渦./ 一天的勞苦便溶化於笑渦裡了. (<笑渦>《晨報副鐫》第3卷 1922.12.13.)

55) 新穀的飯在口了./ 想起昔日的勞苦./ 快樂之漏流在碗裡了. (<農家短歌七首·7>《晨報副鐫》第2卷 1922.6.16.)

수 없는 곳이다. 요컨대 농촌은 '즐거움의 눈물'이 있는 이중적인 공간이다. 시인은 '즐거움의 눈물'이 '땀그릇 안'에 '흘러들어가는' 과정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서사는 생략하고 있으나 '즐거움의 눈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농민은 농사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은커녕 '끊임없이 돌아가는 수차'<sup>56)</sup>처럼 지속적으로 농업노동에 종사하며 생존할 수밖에 없는 사회기층민중이다. 河植三의 시에는 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드러나 있진 않지만, 시인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름다운 서정의 농촌 풍경 속에 농민의 고통도 함께 간결하게 담아내고 있다.

유채꽃 밭 안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은 나비인가?/ 아니다, 농부의 해진 무명 적삼이다 <고향 떠나오다·八>의 전문<sup>57)</sup>

누에는 고향 사람들이 기르고/ 비단은 성 안 사람들이 입는다 <농가 7수·二>의 전문<sup>58)</sup>

《晨報副鑄》의 대다수 지식인들이 농민 관련 작품을 쓰면서 '유채꽃 밭 안에서/ 춤을 추고 있는 나비'가 있는 모습만을 주로 낭만적이고 평화롭게 그렸다면, 河植三은 '유채꽃 밭 안에서/ 춤을 추고 있는 나비'가 바로 다름 아닌 '해진 무명 적삼'을 입고 힘든 농업 노동을 하고 있는 '농부'라는 사실도 동시에 각성시켰다는 점이다. 또한 대다수 지식인들이 도시생활 중 지친 심신을 목가적 전원시로 달래고자 했다면, 河植三의 경우 농민이 힘들게 '누에'를 쳐서 만든 '비단'을 '도시 사람들이 걸치지 정작 '고향 사람들'은 입지 못하는 소외된 현실을 드러냈던 것이다. 그의 '도시 사람들에 대한 반감은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W군의 비애·2><sup>59)</sup>에서 '도시 사람들'을 '우둔하며 융통성 없고 또 저주할 만한 세상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56) 自然合韻的水車聲./ 把勞苦如水的車去了. (<農家短歌七首·5> 《晨報副鑄》 第2卷 1922.6.16)

57) 菜花畦裡./ 舞的是蝴蝶?/ 不, 農夫破衣的布. (<離家雜句·八> 《晨報副鑄》 第4卷 1923.4.12.)

58) 蠶是鄉下人養的./ 網是城裡人著的. (<農家短歌七首·二> 《晨報副鑄》 第2卷 1922.6.16.)

59) 冥頑不靈而又可咒詛的世人./ (<W君的悲哀·二> 《晨報副鑄》 第3卷 1922.12.4.)

있는데, 이는 고향에 대한 향토 서정을 노래할 때와는 사뭇 다른 거칠고 직설적인 어투인 것이다.

河植三 역시 필요에 의해서 도시생활을 하긴 했지만, 도시생활에서 느꼈던 소외와 고독으로 〈곧 귀향할 나·4〉<sup>60)</sup>, 〈집을 떠나다·1〉 등 향수와 관련한 여러 편의 시를 쓰기도 하였다. 어떤 면에서 볼 때 河植三 역시 향토 서정의 시를 창작한 것은 깊어가는 향수병을 달래기 위한 방안의 하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작품이 농사를 짓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순수한 믿음, 즉 자연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진심어린 애정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다른 작품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내 고향의 아버지여!/ 경성의 좋은 점 묻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이라곤 황사인 베이징은/ 고향의 깨끗에 비교할 수 없지요// 내 고향의 아버지여!/ 제게 무슨 공부하느냐고 묻지 마세요/ 사람이 되는 이치는 하늘의 뜻벌처럼 들었지만/ 차라리 땀나무 쌓여있는 그대들에게 듣는 게 사실 명쾌합니다// .....// 인간의 도리를 하니까 사람이 되고/ 눈이 여기에 내리니까 여기에서 녹는 거죠/ 들관과 고향을 제외하면 모두 깨끗하지 않아요/ 올바른 도리를 아는 것은 차라리 그대들입니다 <고향의 아버지여!〉<sup>61)</sup>의 일부

베이징에서 수학하고 있는 아들에게 ‘고향의 아버지가 ‘경성의 좋은 점’은 무엇이며, 또한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묻는다. 시골 아버지가 ‘경성’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자식에 대한 대견함에서 비롯된 것이겠지만, 또 다른 면을 보자면 도시의 우월성 대한 시골의 콤플렉스를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의 질문에 대해 간결하게 대답한다. 즉, 표면적으로 보자면 도시가 농촌보다 경제적으로 발전해 있고 지적인 면에서 우월할지 모르지만, 도시는 ‘고향보다 깨끗하지 않고’ ‘큰 이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이

60) 偶然經過東車站,/ 見了匆匆的旅人,/ 不知怎的生了說不出的妒忌? (《將歸的我·四》  
《晨報副鐫》第4卷 1923.1.17.)

61) 我故鄉的父老呵!/ 請別問京城的好處../ 滿目黃沙的北京,/ 不及故鄉的乾淨../ 我故鄉的父老呵!/ 請別問我有什麼學問../ 做人的道理聽得一天星斗,/ 還是聽柴積上的你們-實際乾脆../ .....// 因為做人而做人./ 因為雪落在這裏便融在這裡../ 除出山野故鄉都不乾淨,/ 知大道的還是你們. (《我故鄉的父老呵!》《晨報副鐫·文學旬刊》第7卷 1924.10.15.)

공부한 ‘도시’ 사람들이 아닌, 바로 ‘고향’에서 ‘인간의 도리’를 하며 살고 있는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라고 대답한 것이다. 이 점이 바로 河植三의 시가 다른 농민 관련 작품들과 비교하여 좀 더 시적 전달력을 획득할 수 있었던 원천이 된다고 생각한다.

사실 河植三의 작품이 모두 예술적 성과가 탁월하다거나 현실을 명증하게 인식하여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면에서 보자면 그의 시는 짧은 단상들과 소소한 일상들을 소시로 엮어낸 작품들이다. 또한 작품 내용 역시 예리한 현실비판보다는 낭만성에 치우친 경향이 분명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는 농민을 계몽시켜야 할 어떤 열등한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오히려 농민이 느끼는 고통과 기쁨의 순간을 섬세하게 포착하여 그 교감을 소박하지만 진실하게 시로 담아냈다는 면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은 것이다.

### Ⅲ. 군벌에 대한 인식

#### 1. 폭력적 현실에 대한 침묵과 근대감축운동

1911년부터 1928년 거의 20여 년 동안 1300여 개의 크고 작은 군벌들이 대략 140여 차례 전쟁을 일으켰다. 이러한 군벌의 이합집산의 과정은 토지를 겸병해 가는 과정의 다름 아니라 하겠다. 이 과정에서 민중의 토지는 무력으로 강탈당했고 토지를 잃은 농민은 대량으로 농촌을 이탈해 결국 대량의 실업인구와 유민이 발생했다.<sup>62)</sup> 그중에서도 1920년대가 군벌 내전이 가장 치열했던 시기라 할 수 있다. 북방에서는 直隸派, 安徽派, 奉天派 등 북방군벌이 북양정부를 중심으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었으며, 남방에서는 雲南軍, 廣西軍 등 서남군벌이 광둥정부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힘을 조율하고 있었다.<sup>63)</sup> 이런 구도 속에 군사적 열세에 놓여있던 광둥정부보다는 정치적 합법성, 정통성 면에서 취약했던 북양정부가<sup>64)</sup> 베이징이라

62) 張軍, 〈北洋軍閥統治時期的土匪與軍閥〉: 《衡水師專學報》, 蘇州, 蘇州大學, 第5卷第4期, 2003.12, 31쪽 참조.

63) 陳志讓/ 박준수, 《軍神政權》, 고려원, 1993, 55쪽 참조.

는 거점과 군사적 우위를 앞세우며 좀 더 우세한 형국이였다.

당시 《晨報副鑄》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베이징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胡適 등은 북양정부에 ‘好人政府(好政府主義)<sup>65)</sup>를 요구하였으며<sup>66)</sup>, 梁啓超 등 ‘研究系<sup>67)</sup> 지식인들은 지방유지, 재벌, 정객, 군벌 등이 결탁한 권력구조를 지양하고 지식인이 주도하는 이성적인 사회 통합을 촉구하고 있었다.<sup>68)</sup>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이상적 방안들이었으며 오히려 현실은 북양정부를 둘러싼 군벌 간 내전으로 더욱 격화되고 있었다.

이렇듯 지속적인 정치적 불안정은 군벌, 토비 등의 농민에 대한 불법적인 자원약탈을 방조하여 지역사회는 황폐해져갔다. 북방의 경우 소작농보다는 자작농 비율이 높아 빈부 격차가 그다지 크지 않은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 구조를 갖고 있었지만, 군벌 내전 이후 구매력 약화와 상업 부진 그리고 군대의 세금 징수 및 군량, 사료, 군마와 ‘민부<sup>69)</sup> 등 각종 차출로 농민의 삶은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sup>70)</sup> 뿐만 아니라 여러 무장 세력의 마을 불시 출몰 역시 농민의 안정적인 삶을 방해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르포 형태의 기사문인 拉因의 〈병사 아직 안 갔나?〉<sup>71)</sup>에는 어떤 군대가 무자비하게 농민을 살육하고 마을을 지나간 내용을 고발하고 있는데, 이는 비합법적 폭력이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농민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공포가 되는지, 게다가 그것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얼마나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을지 보여준다.

64) 본래 임시 약법 규정에 의거하여 국회 구성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는데 국민당이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이에 불안을 느낀 위안스카이는 국민당 대표 宋教仁을 죽이고 국민당도 해산시키더니 급기야 1914년에는 국회마저도 해산시켰다. 북양정권은 이런 위안스카이를 계승하고 있으니 정치적 합법성과 정통성 면에서 당연 명분이 적었던 것이다. (蔣旭外, 〈北洋政局的特點探析〉, 《綿陽師範學院學報》第28卷第3期, 2009.3, 112쪽 참조)

65) ‘好人政府’란 헌정의 정부, 공개적인 정부, 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정부를 가리킨다.

66) 蘇繼紅, 〈胡適與北洋軍閥〉: 《北方論叢》, 哈爾濱, 哈爾濱師範大學, 第179期, 2003年 第3期, 57쪽 참조.

67) 梁啓超, 鄭振鐸 등 진보당이 주축이 된 헌법연구회를 가리킴.

68) 오병수, 〈研究系 지식인과 北伐〉: 《중국근현대사연구》, 중국근현대사학회, 제16집, 2002.12, 93쪽 참조.

69) 관가에서 불러서 쓰는 인부

70) 晨光 〈農民生活(特別調查)〉 《晨報副鑄》第14卷 1927.8.8.(연재 一~六) 참조.

71) 拉因 〈兵去未?〉 《晨報副鑄》第3卷 1923.11.1.

...../ 억울, 우울, 고민, 피곤과 억압당한 비통을 머금고, /나는 시들어서 다 떨어질 수풀 아래에 엎드려, /온통 어두컴컴한 공허 속에 있는 먼 산을 아득하게 바라보며 /평화스런 고향을 염려한다, 포화의 전율하는 소리 속에서/ ...../ 인간의 미친 웃음과 같은 포성이 으르렁 전해지더니 /평화와 원한의 달콤한 꿈을 산산이 부순다 /나는 인간 세상에 다시 나타난다 - 지옥의 인간세계로 다시 돌아간다/ ..... 〈他鄉〉의 일부<sup>72)</sup>

장기간 동안 지속된 잦은 내전으로 사람들의 심신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위의 시는 바로 그러한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 즉, 시인은 '온통 어두컴컴한 공허'로 변해버린 세상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며 자신의 '고향'마저도 '평화'가 깨질까 염려한다. 장기간 이어지는 '전쟁'으로 사람들의 '마음'은 '삭막'해지고, '부당한 억압'을 받아 생긴 '비통'으로 '우울, 고민, 피곤'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감정이 된다. 이러한 '인간세상'에서는 결코 '평화'를 꿈꾸는 '달콤한 꿈'을 꿀 수 없기에 '전 우주'는 '슬피 우는' '지옥'이 되는 것이다. 크고 작은 군벌 간 내전 가운데 다음 두 작품은 북양군벌 내 전쟁을 비판하고 있다.

① 돌연 어느 날 아침 폭풍이 일더니/ 남산 한가운데서 전쟁이 시작되었네/ 새끼 호랑이는 나무뿌리로 날카로운 발톱을 갈고/ 대호는 나무뿌리로 거대한 이를 갈았지/ 수풀 사이 초지는 전쟁터가 되었고/ 호랑이 무리는 서로 물어뜯어 난마가 되었구나// ..... 〈시사에 유감을 갖다〉의 일부<sup>73)</sup>

② 재작년엔 둘이 하나를 치더니/ 올해는 둘이 서로 싸우네/ 싸우지 않고는 너덜해질 수 없어/ 싸워서 다른 이에게 보여주네 〈奉天派와 直隸派 간의 전쟁·1〉<sup>74)</sup>의 일부

72) ...../ 含了冤抑, 憂鬱, 苦悶, 疲乏與被壓迫的悲痛, /我伏在這行將凋落盡了的樹林之下, /遙望着遠山在黑茫茫的空幻裡, /惦念着和寧的家鄉, 在砲火的顛聲裡./ ...../ 似人間狂笑的砲聲, 轟轟地傳來, /把和平與怨怨的好夢, 擊得粉碎. /我重現於人世間-重返入地獄的人世間 (焦菊隱 〈他鄉〉《晨報副鐫》第14卷 1927.11.24.)

73) 忽然一朝暴風來,/ 南山之中戰端開./ 小虎樹根磨利爪,/ 大虎樹根磨巨牙./ 林間草地成戰場./ 群虎相噬如亂麻!// ..... (張維周 〈有感時事〉《晨報副鐫》第4卷 1923.3.16.)

74) 前年兩個打一個,/ 今年兩個互相打,/ 不打不得爛,/ 打給外人看. (潘力由 〈奉直之戰·一〉《晨報副鐫》第2卷 1922.6.10.)

잘못한 두 시 모두 1922년 奉天派와 直隸派 간의 전쟁을 비판한 작품들이다. ①의 경우 ‘큰 호랑이’와 ‘작은 호랑이’로 각각 奉天派와 直隸派를 비유해 냉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면, ②에서는 ‘둘이 싸운다’는 표현으로 奉天派와 直隸派의 전쟁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호랑이 무리가 서로 물어뜯어 난마처럼’ 되었다는 것은 당시 군벌 간 내전이 얼마나 치열하게 전개되었는지를 반증한다. 또한 ‘재작년 둘이 한 차례 싸웠다’는 것은 1920년 발생했던 安徽派와 直隸派 간의 전쟁을 가리키는 것으로 내전의 반복성을 간결하게 서술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전쟁이 끝난 뒤의 ‘너덜해진’ ‘난마’와 같이 된 ‘호랑이’ 상태다. ‘호랑이’가 이 정도의 상태가 될 지경이라면 전쟁에 동원된 ‘병사’들의 상황은 얼마나 더 비참할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전쟁에 동원된 ‘병사’들은 가해자임과 동시에 희생자인 것이다.

청화군사학회 소속이었던 戴照然가 山西 太原의 한 군대에 가서 병영 체험한 내용을 7차례에 걸쳐 《晨報副鐫》에 기고한 〈나의 군인생활〉에는 당시 군대와 군인의 상황의 정황을 다소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이자오란은 〈나의 군인생활〉에서 「군인들은 개인적으로 다투는 것은 잘하면서도 공식적으로 치루는 전쟁은 형편없으며 무식하기 짝이 없다」<sup>75)</sup>며 병사들을 비판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식량 지급으로 허기에 찬 군인들은 쉽게 약탈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sup>76)</sup>, 「파리와 모기 등이 득실거리고 음식은 청결하지 못해 위생적인 면에서 고생하고 있다」<sup>77)</sup>라는 보고는 당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군인들에 대한 동정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병사에 대한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는 鄭振鐸의 다음 시에서도 잘 드러난다.

뭉비는 차 속에서/ 도처에 용모단정하지 않은 회색 병사가 보인다/ 나는 그들의 거칠고 무지한 얼굴을 의혹의 눈길로 본다/ 용서와 동정이 누차 내 마음을 스치기도 하지만/ 그들의 소란과 강폭과 교활한 표현들이/ 마침내 지극히 강렬한 혐오의 심연에 온통 스며들더니 스스로 뽑아낼 수 없도록 만든다/ 나는 결국 편협한 인간인 것인가! 〈혐오〉<sup>78)</sup>의 전문

75) 戴照然 〈我的軍人生活〉《晨報副鐫》 제6권 1924.5.18.

76) 戴照然 〈我的軍人生活〉《晨報副鐫》 1924.5.20.

77) 戴照然 〈我的軍人生活〉《晨報副鐫》 1924.11.1.

鄭振鐸은 《晨報副鐸》에서 군벌 휘하의 '병사'를 소재로 삼아 작품을 쓴 거의 유일한 작가다. 군벌 휘하의 '병사'들은 대개 농민들이 농촌을 이탈해 군대에 들어간 생계형 직업군인들이다. 그들은 가해자임과 동시에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鄭振鐸 역시 그들에 대해 '동정'과 '혐오'의 양가적 마음을 갖고 있다. 당시의 '병사'란 직업이 특수한 시대가 낳은 기형적 계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소란, 강폭, 교활'한 표현과 행동들에 대해 질로 '혐오'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시인은 이러한 자신의 모습에서조차도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데 이는 현실과 인간에 대한 鄭振鐸의 섬세한 자각과 관심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몽롱한 등불아래/ 장년이자 실컷 풍진을 겪어온 한 병사가/ 거친 사투리로 말했다/ “난 만리장성 북쪽 외곽에서 14년간 병사생활을 해먹었수다/ 안 가본 곳이 없이 다 다녔는데/ 허다한 날 굶주리고/ 허다한 날 추웠지/ XX전투에서는 3일간 과자 하나만 먹었수다/ 군관은 승리하면 하루를 쉬게 해주겠노라고 말했으면서/ 정작 이겼는데도/ 오경이 되자 나팔을 울려/ 또 출동을 시킵디다/ 군인은 진짜 못해 먹겠더라고!/ 지금 부모님이 내게 돌아오라고 하셔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오” <두 가지 이야기>의 일부<sup>79)</sup>

위 작품 역시 鄭振鐸의 것으로 '한 장년의 병사'의 군대생활 서사를 담고 있다. 그는 '만리장성 북쪽에서 '14년간'이나 '병사생활'을 하며 '굶주림'과 '추위' 등으로 온갖 '풍진'을 다 겪으며 고생을 했는데, '승리'하면 '하루'를 포상 휴가로 주겠노라고 약속한 '군관'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자 더 이상 '힘든' '군대' 생활을 견딜 수 없어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경험담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병사'들은 대개 생계를 위해 군인이 된 농민 출신들이었다. 당시 군벌의

78) 在擁擠的車中./ 到處見不整齊的灰色兵丁./ 我疑視他們的粗率而無知的臉./ 寬恕與同情, 屢次閃耀在我的心上./ 但他們的騷擾與強暴與頑狡的表現./ 竟使我全心浸在極強烈的厭憎的淵而不能自拔了./ 我究竟是一個偏狹的人啊! (鄭振鐸 〈厭憎〉《晨報副鐸》第2卷 1922.3.12.)

79) 朦朧的燈光底下./ 一個壯年而飽歷風塵的兵丁./ 用粗壯的口音說到../ “我在口外當了十四年的兵./ 什麼地方都經歷過./ 受了許多餓./ 受了許多冷./ XX之戰, 三天只吃了一包瓶干./ 軍官說戰勝了便休息一天./ 但是戰勝了/ 五更的時候, 軍號響了./ 又開拔了./ 軍人真不好當!/ 現在我父母叫我回去./ 所以便回去了” (鄭振鐸 〈兩件故事〉《晨報副鐸》第2卷 1922.3.12.)

이합집산에 따른 군비증가, 전쟁증가 등으로 경제는 장기간 불경기에 들어가게 되었고 토지를 잃고 다른 생계수단을 도모해야 하는 농민은 증가하면서 군벌 휘하에 들어가 병사가 된 농민이 적지 않았다. 鄭振鐸의 〈두 가지 이야기〉의 「그런데 말이 지, 동료가 비적을 때려 죽었는데/ 그의 피가 가슴에서 흘러나와/ 땅에 가득했지/ 그의 시신을 보니/ 가여운거야/ 만일 내가 군인이 아니었으면/ 먹고 살 것이 없어/ 비적이 되려고 하지 않았을까?」<sup>80)</sup>라는 또 다른 군인의 경험담 역시 당시의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다. 생계를 위해 군인이 되어 또 다른 생계를 위해 ‘비적’이 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두 형제가 각기 다른 군벌 휘하의 군인이 되어 서로 대치하다가 한 형제가 다른 형제를 죽이는<sup>81)</sup> 비극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렇게 되면 적과 아군의 경계란 무의미한 것이고 진정한 적은 굶주림이 아니었을까.

이상 살펴본 작품들은 군벌 통치 시기의 폭력적 무력을 비판적으로 고발한 것들인데 《晨報副鐫》의 지극히 예외적인 문장들에 속한다. 왜냐하면 《晨報副鐫》에는 군벌 통치 하의 현실에 대한 비판을 담은 작품이 농민 관련 시보다도 훨씬 더 적은 편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군벌 통치 하에서 발생된 다양한 형태의 비합법적 무장 폭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의 없는 편이라고 하겠다. 이는 다음의 키워드로 그 원인으로 추론할 수 있겠다. 첫째, 결여된 비판의식이다. 베이징에서 활동했던 지식인이라는 공간적 특수성으로 인해 북양정부를 중앙정부로 인정했기 때문에 북양군벌에 대한 비판의식이 상대적으로 적었을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晨報副鐫》의 중심인물인 蔡元培, 梁啓超 등은 북양정부에 관료로 일하기도 했다. 따라서 그들의 북양군벌을 바라보는 시각은 광둥정부를 지지하고 있었던 후난 등지의 지식인들과 다소 입장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둘째, 타협적 자세다. 폭력적인 권력에 대해 비판할 용기가 부족해 시대에 적당히 타협했기 때문에 폭력적 현실을 적극적으로 비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무래도 베이징이라는 권력의 중심 자장에서 문필가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무력을 행사하는 권력집단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글을 쓰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면에

80) 但是有同伴，把一個土匪打死。/ 他的血由胸口流出，流了一地。/ 我看見他的屍身，/ 很覺得可憐他。/ 假如我沒有當兵，/ 沒有飯吃，/ 還不是要當土匪去麼？（鄭振鐸 〈兩件故事〉《晨報副鐫》 제2권 1922.3.12.）

81) 潘力由 〈奉直之戰·一〉《晨報副鐫》第2卷 1922.6.10.

서 보자면 胡也頻의 다음 작품은 시사점이 크다.

권력과 진리는/ 양립할 수 없는 원수/ 사람의 영혼 속에 격전하며/ 각각 호시탐  
탐 눈을 크게 뜨고 있다// 진리가 사심 없는 마음으로 깃발을 삼을 때/ 정직은 그  
무기/ 악을 미워하는 의지를 품고/ 평화의 세계를 창조한다// ..... 〈권력과 진리〉  
의 일부<sup>82)</sup>

대체로 '권력'과 '진리'는 길항관계에 놓여있는데, 혼란의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럴  
것이다. 후예핀은 위의 시에서 '사심 없는 마음'과 '악을 미워하는 의지'가 있어야  
'정직'한 양심은 '진리'를 지키고 '평화의 세계를 창조'할 수 있다고 결연하게 외친다.  
후예핀은 《晨報副鑄》 후반기에 많은 작품을 쓴 작가이다. 그는 '시인'이란 '날카로운  
화살'과 같은 '언어'로 '죄악'의 세상을 향해 '화살'을 쏘는 '궁수'와 같아야 한다<sup>83)</sup>고  
하면서 그 자신 시대에 타협하지 않는 내용의 시를 창작했던 지식인이었다.

군벌문제와 관련하여 비판적 성찰의 글이 적었던 것에 대해 일부 지식인들은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대표적인 인물로 費覺天이 있다. 그는 1922년 제1차 奉天  
派와 直隸派 간의 전쟁 직후 발표한 〈《노력》을 환영하며〉라는 글에서 「吳佩孚의  
승리로 돌아간 이러한 군벌전쟁의 횡포는 경제적 상황을 날로 심각하게 만들고 있  
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널리 알려야 할 언론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sup>84)</sup>라고  
일침을 가했던 것이다. 孫伏園 역시 〈어떻게 해야 중국 내전을 멈추게 할 수 있나〉  
에서 「중국인은 강자를 보면 평화를 사랑하고 약자를 보면 전쟁을 사랑한다<sup>85)</sup>고  
냉소적으로 중국인의 비굴한 태도를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이다. 이처럼 당시 베이징 지식인들이 야만의 시대에 군벌과 토비 등의 폭력적 무  
력행사 앞에서 제대로 된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비판적 사유를 불러일으킨다.

82) 權力與眞理/ 是不能兩立之讎敵,/ 在人的靈魂裡激戰,/ 各張着虎視眈眈之眼。// 眞理  
以無私爲旗旌,/ 正直是其武器,/ 抱着惡惡之志願,/ 創造一和平世界。// ... 〈權力與眞  
理〉(胡也頻 〈權力與眞理〉《晨報副鑄》第15卷 1928.1.11.)

83) 이희현, 〈《晨報副刊》의 新詩 동향〉, 《중국문학연구》, 한국중문학회, 2014.8, 67쪽 참  
조.

84) 費覺天 〈歡迎《努力》〉《晨報副鑄》第2卷 1922.5.11.

85) 孫伏園 〈如何防止中國的內爭〉《晨報副鑄》제7권 1924.10.10.

어쨌든 당시 군벌로 인해 야기되는 정국의 혼란 상황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 기고문과 논설문 등은 문학 작품의 그것에 비한다면 좀 더 많은 편에 속한다. 예컨대 張君勳의 내전 관련 연설을 1924년 10월부터 1924년 11월까지 9차례에 걸쳐 정리한 〈국내전쟁 6강〉을 보면 당시 내전에 관한 張君勳의 시각을 알 수 있다. 즉, 張君勳은 연설에서 「江浙戰爭」<sup>86)</sup>으로 인해 정국이 혼란해도 국민들이 성숙하기만 하다면 정치는 곧 안정이 되어 갈 것이기<sup>87)</sup> 때문에 「무력이 아닌 법으로 내전 문제를 해결해야한다」<sup>88)</sup>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張作霖과 吳佩孚의 '直奉戰爭' 이후 吳佩孚가 奉天派와 연합해서 과연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하면서, 병력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국민에게 돌려줘야 민주정치가 가능해지면서 중국 분열을 수습할 수 있다고 주장」<sup>89)</sup>했다.

張君勳가 내전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군대감축 주장은 군벌문제 해결 대안으로 가장 많이 제시된 방안이다. 이러한 군대감축 주장은 直隸派의 吳佩孚가 1922년 4월 제1차 '奉直戰爭'에서 승리한 뒤 북양정권을 장악한 뒤 '法統을 중심으로 한 통일'을 추구하자, 정치개혁의 가능성을 기대한 베이징 지식인들이 전개했던 운동이었다. 그해 10월 임시로 '國民裁兵運動促進會'가 발족하였고 여기에 70여 개의 단체가 가입하여 '군대와 예산을 줄이고 나라와 백성을 구하자(載減兵額, 救國救民)'라는 깃발을 내세우며 대대적으로 '군대삭감대회(載兵大會)'를 전개했는데 이는 당시 군대감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형성되었던 것인지를 보여준다.<sup>90)</sup> 사실 군대감축 제기는 1916년 袁世凱 사후에 거론되었던 것으로 이후 1919년 '南北裁兵會議'를 거쳐 이미 공론화되었던 운동이었다.<sup>91)</sup>

86) '齊盧戰爭'이라고도 칭하는 이 전쟁은 1924년 江蘇 독군 齊燮元과 浙江 독군 盧永祥이 사이에서 벌어졌다. 이 전쟁은 실제로 보면 直隸派와 反直隸派 군벌 사이의 힘겨루기 싸움이었으며 이후 제2차 直隸派와 奉天派 전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www.daidu.com 참조)

87) 張君勳 〈國內戰爭六講〉《晨報副鐫》 제7권 1924.10.16.

88) 張君勳 〈國內戰爭六講〉《晨報副鐫》 1924.10.17.

89) 張君勳 〈國內戰爭六講〉《晨報副鐫》 1924.10.17.

90) 백영서, 〈1920년대 북경정부의 정체성위기와 '천안문집회': 학생운동의 시각〉: 《역사학보》, 역사학회, 1993. 6153쪽 참조.

91) 陶菊隱, 《北洋軍閥總治時期史話》第3冊, 22-23쪽 재인용. (陳志讓/ 박준수, 《軍神政權》, 고려원, 1993, 114쪽 참조)

어쨌든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晨報副鑄》에도 군대감축과 관련한 기고문이 한꺼번에 꽤 여러 편 게재된다. 예컨대 孫幾伊는 〈군대감축 주장〉에서 「대총통 黎元洪은 군대를 줄일 수 있는 사람」<sup>92)</sup>이라며 군대감축에 대한 희망을 낙관적으로 표명하였고, 費覺天은 〈세금감면 군대감축 논의〉에서 「사회 혼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군벌이 사회를 쪼먹고 있다는 사실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sup>93)</sup>면서 군대감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蔡元培 역시 〈오늘에 이르러 우리가 군대감축 문제에 대해 보편적인 표현도 할 수 없단 말인가?〉에서 「사회문제가 허다한데 소수 야심가들이 병력을 동원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sup>94)</sup>며 적극적으로 군대감축을 주장했다.

그러나 북양정권이 초기의 유연한 태도에서 탈바꿈하여 집회에 강경 대응하면서<sup>95)</sup> 군대감축 논의는 더 이상 진척되지 못했고, 결국 국민혁명전쟁의 당위성을 부여하면서 북벌전쟁에서 굴복한 북양정권은 힘을 잃게 되었다. 사실 군대감축 문제 해결은 현실적으로 몇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수반하고 있었다. 첫째, 군벌 자신의 안전이 군사력에 달려 있는데 자신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 하에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군대를 감축 혹은 해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이는 마치 달리는 호랑이의 등 위에서 뛰어 내리는 형국과도 같은 것이었다.<sup>96)</sup> 둘째, 군대감축 혹은 해산 이후 병사들의 거취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적절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런 상태에서 군대감축과 해산을 한다면 이로 인해 직업을 잃은 군인들은 자신들의 생계마련을 위해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다시 말해 군대 감축으로 유민, 토비 증가라는 풍선효과가 우려되었다는 점이다.<sup>97)</sup>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백성을 이주시켜 황무지를 개척하는 문제와 그 절실한 해결 계획〉<sup>98)</sup>에서처럼 「사병을 황무지 개척에 투입한다면 군대감축과

92) 孫幾伊 〈裁兵說〉《晨報副鑄》 제3권 1922.10.10.

93) 費覺天 〈抗稅裁兵論〉《晨報副鑄》 제3권 1922.10.10.

94) 蔡元培 〈到了今日我們對裁兵問題還可以沒有一種普遍的表示麼?〉《晨報副鑄》 제3권 1922.10.10.

95) 심지어 1923년 여름 '北京政變'과 조곤의 부패선거로 베이징정부의 정당성이 극히 약화되었을 때조차도 천안문에서 집회가 열리지 못했다.(백영서, 158쪽 참조)

96) 陳志讓/ 박준수, 《軍神政權》, 고려원, 1993, 115쪽 참조.

97) 《時報》, 1929.3.3.; 陳志讓/ 박준수 역, 114쪽 재인용.

‘신촌’<sup>99)</sup> 건설이라는 두 가지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 역시 실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어 더 이상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후 광동정부의 국민당 ‘改組’ 이후 국민혁명운동이 진행되면서 북벌이 완성되자 북양정권은 결국 와해되고 대부분 지식인들이 남하하면서 《晨報副鐫》도 덩달아 폐간되었다.

## 2. 徐玉諾의 경우: 시대적 비극을 절규할 줄 알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晨報副鐫》에는 농민 관련 작품도 많지 않지만, 군벌 관련 문학작품은 더욱 적었음을 알 수 있었다. 《晨報副鐫》이 북양정부 시기 베이징에서 발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입각해보면 《晨報副鐫》이 일정정도 한계를 지닐 수 있으리라는 점<sup>100)</sup>은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晨報副鐫》이 애당초 진보적 지식인들의 참여에 의해 발간되었고, 또한 ‘인생을 위한 예술’을 표방하던 文學研究會에 ‘文學旬刊’을 할애했던 점<sup>101)</sup>을 생각한다면 농민에 대한 관심과 어두운 시대 상황 비판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王統照의 경우 《晨報副鐫·文學旬刊》의 주요 집필진으로 「중국인은 사유와 안목은 막혀있고 감정 역시 경직되어 있다」고 하면서 「《晨報副鐫》을 통해 그 길을 개척해야 한다」<sup>102)</sup>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의 작품은 자신의 주장에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군벌전쟁 등을 제재로 삼아 작품을 창작하는데 선구적 역할을 했던 徐玉諾은 독보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라 하겠다.<sup>103)</sup> 徐玉諾은 300여 편이 넘는 시를 창작했는데 그 중 10여 편의 작품을 《晨報副鐫》에 발표되었다. 그의

98) 光炯 〈移民墾荒問題與其切實的解決計劃〉《晨報副鐫》第9卷 1925.9.11.

99) 당시 1村은 2백호가 모여 이루어졌고, 4村이 합쳐지면 1市가 되었다. (光炯 〈移民墾荒問題與其切實的解決計劃〉《晨報副鐫》第9卷 1925.9.11.)

100) 이희현, 〈《晨報副刊》의 新詩 동향〉, 《중국문학연구》, 한국중문학회, 2014.8, 65쪽 참조.

101) 《晨報副鐫·文學旬刊》은 《晨報副鐫》의 별도 칼럼으로 《晨報副鐫》 제5권의 1923년 7월 1일자부터 제9권 1925년 9월 25일자까지 총 82호가 발행되었다.

102) 王統照 〈文學作品與自然〉《晨報副鐫》第5卷, 1923.7.11.

103) 李海英, 《地方性知識與現代抒情精神-河南新詩史論》, 河南大學博士學位, 2013, 55쪽 참조.

작품에는 군벌 시대의 어두운 사회상이 어둡고 거칠게 투사되어 있다. 徐玉諾은 1894년에 가난하고 낙후한 河南 豫西 魯山의 한 농촌 가정에서 출생했다. 허난은 군벌, 토비, 민단<sup>104</sup> 등 서로 다른 성격의 무력집단이 자주 상호 충돌했던 곳이었다. 특히 그가 성장했던 魯山은 토비와 관군이 거주하면서 약탈과 살인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었다.<sup>105</sup> 그가 군벌과 관련한 작품을 비교적 많이 창작하게 된 것은 그의 이러한 성장 배경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당시 상황으로 볼 때 군벌 통치 하의 부당한 폭력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을까를 반문해본다면, 徐玉諾과 같은 작가가 많지 않았다는 사실에 오히려 주목이 가는 것이다.

만일 내가 약자가 아니라면/ 나는 총을 들고 고향으로 갈 것이다/ 그곳은 피와 연기 날아 튀고 시신은 땅에 가득한 곳/ 병사/ 한가로운 장수/ 촌장 수하의 총을 지닌 사람들 사이에서 피차 구분되지 않는 전쟁터에서/ 내가 그들을 휘멸했거나/ 혹은 그들이 나 자신을 휘멸했다면/ 그건 의미 있는 것이리니! 〈만일 내가 약자가 아니라면〉의 전문<sup>106</sup>

시인의 ‘고향’은 ‘총’으로 무장한 ‘병사’, ‘장수’, ‘촌장 수하의 사람’이 ‘서로를 구분하지 못하는 전쟁터’로 변해 ‘시신이 땅에 가득한 곳’이 되었다. 문제는 무장 세력 간의 빈번한 싸움으로 힘없는 ‘약자’들이 무고하게 ‘휘멸’ 되는 피해를 받게 된다는 점이다. ‘만일 내가 약자가 아니라면’이라는 시 제목의 가정법은 무법천지 속 폭력 앞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어 무방비로 당해야 하는 당시 다수 민중의 무기력한 절망의 탄식을 대변하는 듯하다. 불법적 무력이 힘을 휘두르는 상황이라면 스스로의 무장만이 최선의 방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이는 불가피하게 또 다른

104) 민단은 일종의 향촌 자치 방위 조직이다. 허난에는 토비의 약탈과 관병의 착취에 저항하여 결성된 紅槍會가 있었다. (박상수, 〈1920-30년대 중국 서남지역 농촌의 神兵운동〉, 《한국중국근현대사학회》, 2007.9. 58쪽 참조)

105) 李海英, 《地方性知識與現代抒情精神-河南新詩史論》, 河南大學博士學位, 2013, 56쪽 참조.

106) 假若我不是一個弱者,/ 我要提只手槍走進故鄉去../ 在那邊血煙飛濺屍身滿地./ 丘八./ 倘將./ 村長手下持槍的人們中間不分彼此的戰場上./ 我毀滅了他們../ 或者他們毀滅了我自己./ 那也是有意義的! (徐玉諾 〈假若我不是一個弱者〉《晨報副鐫》第4卷 1923.2.23.)

폭력의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1920년대의 비극이 있는 것이다. 결국 開明이 〈두 개의 꿈을 부여하다〉에서 「등 위의 엽총은/ 내가 평화스럽게 항쟁하는 표식」<sup>107)</sup>이라고 했던 것은 은유가 아닌 현실의 노래인 셈이다. 이렇듯 군벌 통치 시기에서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스스로 무장하거나 아니면 무장 세력의 휘하에 들어가는 농민이 적지 않았다.

徐玉諾가 군벌과 토비가 횡횡하는 시대에 누구보다도 폭력적 무력에 강한 저항감을 표출했던 것은, 물론 자신의 가족과 친척이 그들에게 희생당했다는 분노에서 출발한 것이겠지만 또 다른 이유는 그의 호방한 저항적 기질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예컨대 그는 〈폐원〉에서 「비바람에 깎여 온 몸이 상처인데 강직하게 거기에 서 있는 두 개의 돌기둥 공덕패방」<sup>108)</sup>이라고 노래한다든지, 〈소시·3〉에서 「얼음의 세계라도 괜찮다/ 나의 주재시여!/ 내 청춘의 꿈을 어지럽히지만 앓는다면」<sup>109)</sup>이라고 노래하며 그는 호방한 청년기질을 드러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시가 갖고 있는 힘은 무엇보다도 시대에 저항할 줄 아는 지식인의 책무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인다.

나는 나의 사랑이 이 흑암의 길에 들어가는 걸 수궁하려는가?/ 생활은 내게 말한다. “수습할 방법이 없구나.”/ 세력은 내게 말한다. “행동해선 안 된다.”/ 내 양심은 내게 말한다. “이것 말고는 네가 갈 곳이 없다.” 〈소시·2〉의 전문<sup>110)</sup>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누구나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본능과 양심 사이에서 갈등하기 마련이다. 바로 위의 작품은 시인의 그러한 과정을 보여 준다. 여기에서 말하는 ‘나의 사랑’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구체적이지 않지만 분명 잃고 싶지 않은 어떤 것이리라. 시인은 ‘흑암의 길’을 앞두고 ‘나의 사랑’이 ‘이 흑암의 길’로 ‘들어가는 걸 수궁하려는지’ 자문한다. 이러한 자문은 이상과 현실사이에서 갈등하

107) 開明 〈賦得兩個夢〉, 《晨報副鐫·文學旬刊》, 제7권, 1924.9.9.

108) 盤繞在黑煤渣(?)灰中尙露著環痕的城堡./ 中間還有座偉大而僅留兩條石柱的功德坊./ 被風雨剝削得滿身傷疤, 伉然的在那裡立着./ (徐玉諾 〈廢園〉《晨報副鐫》第5卷 1923.8.2.)

109) 冰的世界也罷../ 我的主宰!/ -只要不擾亂我春之夢. (徐玉諾 〈小詩·三〉《晨報副鐫》第4卷 1923.6.1.)

110) 我要肯着我的愛走進這個黑道嗎?/ 生活告我說..“沒法收拾”/ 勢力告我說..“你不準動”/ 我的良心告我“除此以外你沒處去”(徐玉諾 〈小詩·二〉《晨報副鐫》第4卷 1923.6.1.)

고 있는 인간적인 고민을 표현한 것이다. 즉 그 역시 시대와 타협하지 않으면 자신의 '생활'을 '수습할 방법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내적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 또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외부의 '세력'은 시인에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겁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양심'의 소리를 선택한다. 바로 시인의 이러한 '양심'이 시대의 어두운 폭력적 상황을 그대로 노래하도록 만들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그의 비판적 작품은 북양군벌 전쟁, 남북정부의 대치 등 정국이 가장 혼란했던 1921-1923년 사이, 대부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던 그 시기에 《晨報副鐫》 지면을 통해 발표했다는 사실이다.

지옥에서 생사의 갈림길까지의 그 길/ 먼지가 하늘을 뒤집는 듯 흔들리고/ 태양은 어둡다// .....// 우리의 동행자는/ 취한, 창기/ 관아의 관료들/ 도박꾼, 아편쟁이, 토비...../ 얼마든지 있다/ 거리에 노숙하는 여자결인이/ 그녀들의 아직 모양이 갖추어지지 않은 아이를 업고 있다/ 남북을 분주히 뛰어다니는 정객은 얼마든지 있다/..... / 토비- 못된 새끼, 꺼져! (방아쇠를 잡아당기며) 네 목숨은 아직 내 손에 달려 있어!/ ..... <길에서>의 일부<sup>111)</sup>

<길에서>는 1920년대 초 당시 무질서한 세상의 모습을 디테일하게 잘 포착하여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길에는' 각기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바쁜 다양한 군상들이 등장한다. 이들 가운데 평화롭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두들 비정상적인 세상의 비정상적인 군상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두 부류로 나뉜다. 즉, 한 부류는 '취한', '창기', '도박꾼', '아편쟁이', '거리에 노숙하는 여자결인' 등으로 비합법적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의 음지에서 탄생된 군상들이고, 또 다른 부류는 '관아의 관료들', '남북을 분주히 뛰어다니는 정객' 등으로 비합법적 권력을 행사하여 시대의 그늘을 만들어내는 군상들이 그것이다. 다소 이분법적으로 말하자면 피해자 군상과 가해자 군상인데 이들은 '길에서' 서로 뒤섞여 '동행'한다. 세상은 이들의 '동행'으로 '먼지가 하늘을 뒤집는 듯 흔들리고' '태양도 어둡

111) 從地獄到鬼門關那條路上,/ 塵埃反天似的盪著/ 太陽是黑灰的.// .....// 我們的同行者../ 醉漢, 娼妓../ 大衙門裏老官僚,/ 賭棍, 烟鬼, 土匪...../ 有的是/ 露宿在大街上的女乞丐,/ 背掉着伊們未成形的孩子../ 有的是南北奔波的政客,/ ...../ 土匪 - 混賬東西, 滾! (拉開槍機) 你的命還是在我手裏!/ ..... <(路上)>《晨報副鐫》제1권 1921.10.27.) 徐玉諾.

다. 이 작품 가운데 압권은 ‘토비’가 ‘방아쇠를 잡아당기며’ ‘네 목숨은 아직 내 손에 달려 있어!’라는 겁박의 말을 내뱉는 장면이다. 문제는 이러한 겁박의 말이 문학작품 속의 설정이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 얼마든지 목도할 수 있는 폭력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작가 자신이 12세 때 토비에 의해 몰살 된 가족을 보기도 했으며, 17세 때 숙부가 토비에게 살해당한 일을 경험하기도 했다.<sup>112)</sup>

당시 군벌과 토비는 독특한 구조를 만들어냈다. 군벌의 군대가 군사를 확충하는 과정에서 토비를 병사로 충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고, 역으로 군대가 축소되거나 궤멸될 때 거기에서 이탈한 병사 중 상당수가 토비가 되는 일도 흔했기 때문이다.<sup>113)</sup> 따라서 토비의 비적과 군벌의 병사는 어떤 면에서 보자면 생계를 모색하기 위해서 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굳이 차이점을 들라면 토비의 경우 정권에 대한 관심은 없고 주목적이 생계에 있다면, 군벌의 경우 정권 획득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다는 점이다.<sup>114)</sup> 어쨌든 군벌과 토비의 존재는 정치적 구심력 약화의 반증이며 이로 인한 다수 민중의 고통을 처참했다는 사실이다.

신- 내 눈은 멀었도다! 내 몸 역시 귀먹었도다!

땅- 아, 가련하셔라!

신- 가련하지 않다! 이로 인해 나는 너는 그 불타는 도시의 검붉은 담장과 악인의 얼굴 그리고 황야에 한창 부패하고 있는 시신을 보지 않아도 되니. 또한 그 사람을 놀라게 하고 말을 어지럽히는 총소리, 도발자의 말과 그 노인네들의 곡소리 너는 들리지 않기에 들판이 나를 걱정과 혼란에 빠트리지 않으리니!

땅- 아, 당신의 기쁨을 축하합니다!

신- 기뻐할 수는 없지. 그러나 나는 짓궂은 마음을 지녔도다!

그는 시시때때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나를 그 비참한 공포의 세계로 데려간다. 그 처참한 소리를 듣고 고통스럽게 하여 머리가 아프다. <나의 신><sup>115)</sup>의 일부

112) 武新軍, 〈詩人的苦與痛-談徐玉諾的詩〉: 《平頂山學院學報》, 開封, 河南大學, 第22卷 第6期, 2007.12, 62쪽 참조.

113) 張軍, 〈北洋軍閥統治時期的土匪與軍閥〉: 《衡水師專學報》, 蘇州, 蘇州大學, 第5卷 第4期, 2003.12, 32쪽 참조.

114) 張軍, 〈北洋軍閥統治時期的土匪與軍閥〉: 《衡水師專學報》, 蘇州, 蘇州大學, 第5卷 第4期, 2003.12, 32쪽 참조.

115) 神-我的眼也瞎了! 我的身也聾了! / 地-呵,好可憐呵! / 神-不可憐! 因此我再不見那焚燒的城市的黑紅牆壁, 惡人的面孔, 和那荒野上正在腐爛的死屍了. 也不再聽見那人荒馬亂的槍聲, 挑發者之言語, 和那老年人們的哭聲了 那就野不擾亂我了! / 地-

희곡의 형태로 쓴 이 작품은 무기력한 공포의 세계를 '신'과 '땅'의 대화 형식을 통해 고발하고 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신'은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잃었는데 그 의미는 이중적인 풍자로 파악된다. 즉, '신'조차도 '눈'과 '귀'를 막을 정도로 세상은 '비참한 공포의 세계'라는 점을 풍자했을 가능성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신이 '눈'과 '귀'가 멀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무력이 횡횡하는 무질서한 세상이 될 수 있겠냐는 점을 풍자했을 가능성이다. 어쨌든 '신'은 '눈'이 멀어 '비참한 공포의 세계' 즉, '불타는 도시의 검붉은 담장', '악인의 얼굴', '황야에 한창 부패하고 있는 시신'을 보지 못하고, 또 '귀'가 먹어 '사람'을 놀라게 하는 '충소리', '도발자의 말소리', '노인네들의 곡소리'를 듣지 못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눈'과 '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신'은 정작 '나'를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비참한 공포의 세계'로 데려간다는 데 있다. 그래서 '나'는 '비참한 공포의 세계'의 '처참한 소리'를 '고통스럽게' 들어야 하고 '머리가 아픈'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여기에서 徐玉諾 작품이 출발한다.

이 외에도 徐玉諾은 《晨報副鐫》에 〈농부 자린의 죽음〉<sup>116)</sup>과 〈진가네 마누라와 런화포〉<sup>117)</sup> 등 소설을 두어 편 발표했는데 그중 군벌과 관련된 작품은 〈진가네 마누라와 런화포〉이다. 진가네 남편은 남방 군대와 몇 차례 싸운 후 가축과 농기구를 다 털리게 되고, 동네 소년들은 북양군대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토비가 된 이야기를 담고 있다.

徐玉諾의 작품은 전반적으로 어둡고 세련되지 않은 거친 언어들이 투박하게 사용되어 예술적 관점에서 보자면 좀 더 절제미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 이는 그가 소박한 지방 구어로 작품을 창작해서 북방 농민의 거칠고 투박한 특징을 그대로 체현했기 때문이다.<sup>118)</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가 시대를 아프게 직시하여 그것을 용기 있고 진솔하게 표현했기 때문일 것이다.

啊, 賀你的喜!/ 神-不可喜!.../ 但是我有一個搗鬼的心!.../ 他時時, 不分白晝和黑夜, 引我到那悲慘而/ 可怖的世界裏..聽那悽傷的聲音, 使我心酸,/ 頭疼... (徐玉諾〈我的神〉《晨報副鐫·文學旬刊》第5卷 1923.8.11.)

116) 徐玉諾 〈農夫賈林的死〉《晨報副鐫》第1卷 1921.11.9.-10.

117) 徐玉諾 〈晉家媳婦和任花婆〉《晨報副鐫》第1卷 1921.11.16.-17.

118) 劉濟獻, 〈論徐玉諾鄉土小說的特色〉: 《鄭州大學學報》, 鄭州, 鄭州大學, 1985, 第3期 100쪽 참조.

1920년대 일부 지식인들이 혁명문학을 제창하고 ‘브나로드(到民間去)’를 외칠 때, 徐玉諾이 〈소시〉에서 「우리의 형제는 오히려 ‘모두 민간에서 왔다’네」<sup>119)</sup>라고 노래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당시 적지 않은 작가들이 도시의 모던한 생활을 동경할 때, 오히려 그는 ‘촌스러운 시골(鄉間村野)’의 ‘촌티(村氣)’와 ‘소탈(野氣)’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군벌치하 속 폭력에 노출된 농민의 애환을 담아내는 일에 어찌서 그렇게 집중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河植三과 徐玉諾의 작품세계는 공통점을 갖는다. 비록 河植三의 작품은 부드러운 서정성을 지니고 있고 徐玉諾의 작품은 거칠고 투박하며 어둡지만, 두 사람 모두 농촌과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진심어린 애정을 기반에 두고 시대의 아픔을 노래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 IV. 나가며

안정된 정치 구심력이 없는 시대에는 어김없이 혼란을 겪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 무질서는 대체로 무력의 힘에 의해 재배치된다. 중심권력 부재의 혼전 속에 소수의 누군가는 패권을 얻기 마련이겠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무고한 희생이 뒤따른다는 점이다. 바로 袁世凱의 사후에서 국민혁명 완료까지의 대략 10여년이 넘는 베이징의 시간은 이러한 혼전의 정점을 지나고 있었으며, 절대 다수의 농민계층은 그들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어두운 역사의 터널을 지나오며 고달픈 생존을 이어가야 했다. 물론 농민계층만 힘든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동시대를 살아갔던 대부분 지식인들도 민족의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워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생계 모색을 위해 시대가 주는 여러 가지 과제 앞에서 절망에 절망을 거듭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식인들은, 그들만의 서사를 쓸 만한 여력도 없이 광폭한 시대의 소용돌이 속에서 속수무책 영문도 모른 채 한 시대를 감내하며 살아내야 했던 절대다수 농민계층과는 분명 다른 계층이다. 도처에서 피비린내 나는 살풍경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어 어렵지 않게 그러한 일들을 직·간접적으로 목도할 수

119) 劉濟獻, 〈論徐玉諾鄉土小說的特色〉: 《鄭州大學學報》, 鄭州, 鄭州大學, 1985, 第3期 99쪽 참조.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의 힘을 지니고 있었던 대부분 농촌 출신이었던 지식인들이, 그러한 일상적인 비극을 자신의 가슴으로 내재화하여 글로 쓰지 않거나 혹은 못했다면 그것은 지식인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결과라 생각한다.

바로 본고는 이러한 비판적인 인본주의 관점에서 《晨報副鐫》에 반영된 1920년대의 베이징지식인들의 기층 농민계층에 대한 인식태도 일면을 고찰하게 되었다. 그 결과 농민의 고통과 삶에 진정어린 관심과 애정을 갖고 그들의 삶과 함께 있었던 河植三이라든가, 폭력적인 현실의 무력을 향해 비판적 목소리를 낼 줄 알았던 徐玉諾 등 일부 지식인들을 제외한다면, 《晨報副鐫》에 글을 발표했던 대다수 지식인들이, 시대적 고통을 기록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못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즉, 《晨報副鐫》에는 기본적으로 기층민중인 농민에 대해 진심어린 관심을 표명한 작품 편수가 의외로 적을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지식인 자신들의 향수를 달래기 위한 목가적인 전원시 창작에 치중된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1920년 중반에 이르면 농민 관련 작품은 거의 찾아보기조차 어렵게 된다.

물론 1920년 중반 이후부터는 농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설문 등이 여러 편 실리고는 있으나, 이 역시도 다른 주제의 기고문들에 비한다면 그 편수가 턱없이 적고 주제 또한 단일하다. 이는 국민혁명 전개 분위기에 편승하여 농민문제 해결 방안을 주로 평민교육과 농민협회 조직 등에 집중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晨報副鐫》에는 군벌과 관련한 작품 역시 많지 않았다. 본고에서 군벌과 관련한 작품이라는 것은 단순히 군벌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당시 폭넓게 자행되고 있었던 비합법적 모든 무장 폭력을 포함한다. 어쨌든 지식인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대부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이는 군벌 정치에 대한 그들의 비판의식 결여 혹은 시대 타협의 태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군벌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역시 군대의 감축 혹은 해산을 주장하거나 ‘聯省政府’ 등을 구상하는 천편일률적이고 이상적 대안들이 대부분이라, 기층 민중의 고통을 실제로 해결하는 적실한 방안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고의 이러한 결과 도출은 어떤 면에서 보자면 《晨報副鐫》의 농민, 군벌 관련한 일부 작품, 기고문, 논설문 등을 표본 텍스트로 삼았기 때문에, 1920년대의 베

이정 전체 지식인의 사회인식 태도를 대변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농민의 비참한 상황과 군벌 통치 하 폭력적 권력에 대해 거론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시 베이징 지식인들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측면도 분명 존재 하리라 생각한다. 실제 몇몇 지식인들은 농민과 군벌 관련하여 직접적인 사회비판적 글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그들 나름의 진보적인 사회참여 활동으로 비극적인 희생을 당하기도 했으니 말이다.<sup>120)</sup>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심분 감안하더라도 당시 1920년대 베이징에서 활동했던 지식인들의 민중과 시대에 대한 책무의식은 그 한계를 일정 정도 노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농민은 역사적으로 늘 소외와 착취를 받아온 기층 계층이다. 오늘날도 여전히 농민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다. 인문학은 인간의 삶을 방해하는 모든 권력구조의 면면을 드러내고, 아울러 그 권력구조로 인해 상처 받는 힘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슴 깊은 고민과 관심을 지닐 때, 인문학 본연의 진정한 역할과 가치를 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역으로 말하자면 오늘날 인문학이 점점 그 힘을 상실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晨報副鐫》에 무수히 많은 문학작품이 있었음에도 주목을 끌지 못했던 이유와 일면 동일선상에 있을지도 모른다. 더욱이 우리가 그들의 농업 노동의 대가에 기대어 지속적으로 식량을 섭취하고 살아가야 할 존재인 한, 인문학은 지속적으로 취약한 구조에 놓여있는 농민계층 즉, <근면하게 노력해도 큰 이득 얻을 수 없는 농부들><sup>121)</sup>에게 향해 있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일 것이다.

### 【參考文獻】

《晨報副鐫》(一)~(十五), 人民出版社, 香港, 1981年.

賴斯捷, <《晨報副刊》的產業運動與現代文學的發展>, 《中國文學研究》, 2008年第2期.

120) 예컨대, 汪靜之(1902-1996)의 경우 農工黨에 가입하여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북벌군 총사령부에서 편찬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지만, 그가 《晨報副鐫》에 발표한 작품들은 <荷葉土一滴露珠>(제1권 1921.11.2.), <于是詩人笑了>(제1권 1921.11.3.) 등 대개 감상적인 서정을 담은 노래들만 창작했다. 應修人(1900-1933) 역시 1925년 공산당에 가입하고 훗날 국민당에 의해 피살되었지만, 그의 작품들은 <別後>(제2권 1922.5.10.) 등으로 대부분 낭만적 사랑을 노래했다.

121) 勤勞不能得厚利的農友們(硯農 <歸鄉雜詩·四>《晨報副鐫》第6卷 1924.4.16.)

- 姜彩杰外, 〈《晨報副刊》與思想文化公共領域的建構〉, 《新聞世界》, 合肥, 新聞世界雜誌社, 2011年第6期.
- 王憲明外, 〈五四時期李大釗傳播馬克思主義的第二陣地-《晨報副刊》傳播馬克思主義的貢獻與意義〉, 《安徽大學學報》2011年第4期.
- 楊敬方, 〈《晨報副刊》與馬克思主義的傳播〉, 《樂山師範學院學報》第27卷第9期, 2012年9月.
- 李海英, 《地方性知識與現代抒情精神-河南新詩史論》, 河南大學博士學位, 2013.
- 劉軍, 〈鄉間的死生 泥土的氣息-論臺靜農鄉土小說中的死亡意象〉: 《烏魯木齊職業大學學報》, 蘭州, 西北師範大學, 第13期 第4期, 2004.12.
- 劉濟獻, 〈論徐玉諾鄉土小說的特色〉: 《鄭州大學學報》, 鄭州, 鄭州大學, 1985, 第3期.
- 張軍, 〈北洋軍閥統治時期的土匪與軍閥〉: 《衡水師專學報》, 蘇州, 蘇州大學, 第5卷 第4期, 2003.12.
- 蘇繼紅, 〈胡適與北洋軍閥〉: 《北方論叢》, 哈爾濱, 哈爾濱師範大學, 第179期, 2003年 第3期.
- 武新軍, 〈詩人的苦與痛-談徐玉諾的詩〉: 《平頂山學院學報》, 開封, 河南大學, 第22卷 第6期, 2007.12.
- 오병수, 〈研究系 지식인과 北伐〉: 《중국근현대사연구》, 중국근현대사학회, 제16집, 2002.12.
- 강경락, 〈1920-30년대 河北 농촌사회의 변화〉, 《한국중국현대사연구회》, 1998.6.
- 유용태, 〈1906-1926년 중국의 농회와 농민협회〉, 《역사교육》, 서울, 역사교육연구회, 1996년 12월.
- 유용태, 〈중국 국민혁명기 지역청년단체와 농민조직 활동〉, 《역사학회》, 역사학보, 1995.6.
- 유용태, 〈남경정부시기 국민회와의 농회〉, 《중국현대사연구》, 한국중국현대사연구회, 제8집, 1999.12.
- 유용태, 《지식청년과 농민사회의 혁명》, 문학과 지성사, 2004년.
- 손승희, 〈河南紅槍會와 국민혁명〉, 《중국현대사연구》 제11집, 한국중국현대사연구회.
- 손승희, 〈1920년대 국가주의과의 군벌에 대한 인식 변화〉, 《중국학보》 제50집, 한국중국학회, 2004.12.
- 라현수, 〈국민혁명기 湖南에서 토지문제의 제기〉, 《중국현대사연구》 제10집, 한국중국현대사연구회.
- 임재범, 〈국민혁명기 중국공산당의 조직공작〉, 《역사학보》 제160집, 역사학회.
- 박상수, 〈1920-30년대 중국 서남지역 농촌의 神兵 운동〉, 《한국중국근현대사학회》,

2007.9.

- 김영신, 〈국민혁명초기 국민당 우파의 현실인식과 대응〉, 《동양학》 제49집, 동양학연구소, 2011.2.
- 홍영기, 〈1920년대 초 지식인들의 농민운동 이념〉, 《중앙사론》, 한국중앙사학회, 1999.
- 조너선D. 스펜스/김희교, 《현대중국을 찾아서 1》, 이산, 1999년.
- 조너선D. 스펜스/정영무, 《천안문》, 이산, 2002년.
- 陳志讓/박준수, 《軍神政權》, 고려원, 1993.
- 친후이 외/유용태, 《전원시와 광시곡》, 이산, 2000.
- 임상범, 《現代中國의 出發: 국민혁명기(1920-1927)북경지역 중국공산당의 조직과 활동》, 一潮閣, 2000.
- 이윤희, 《1920년대 중국 향토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2.
- 이희현, 〈《晨報副刊》의 新詩 동향〉, 《중국문학연구》, 한국중문학회, 2014.8.
- 백영서, 〈1920년대 북경정부의 정체성위기와 '천안문집회': 학생운동의 시각〉: 《역사학보》, 역사학회, 1993.6.

### 【中文提要】

本文以《晨報副鑄》的文學作品、記事文、論說文等研究1920年代在北京知識分子對於農民和軍閥的思惟方式。以前有關農民與軍閥的研究主要以湖南農民運動爲中心或者以北洋軍閥之間戰爭爲中心考察。1920年代北京因北洋軍閥之間戰爭及北洋政府與廣東政府的對峙等發生不少混亂的狀況。因次絕大多數農民難以生活，當時農民與軍閥的關係很密切，因爲軍閥統治下農民受到很多痛苦。軍閥從農民掠奪土地、糧食，還徵發壯丁。農民離鄉村做爲土匪，他們也掠奪或非法虐殺別的農民。這樣以來，農民無法保護自己的方法，有的鄉村結成農村民團。但是他們摘財源、兵力、組織等多方面都不足免不了軍隊或土匪勢力的武力打擊。

首先，在文學方面上來考察，其實《晨報副鑄》里有關農民、軍閥的文學作品并不多。那些有關鄉村主題的作品也大部分反映出理想的鄉村風景，還有懷念故鄉的。尤其與軍閥相關的作品比鄉村主題的更少，可見知道的是當時在北

京的知識分子對於農民的關心不那麼強。其次，在對於農民、軍閥的社會問題方面上來考察，他們擴及平民教育啓蒙農民是爲了一方面組織農民協會一方面救國。

他們努力于裁兵解決軍閥問題，但是這個方法很難實現。因裁兵必然發生退休兵士失業問題，他們不容易找到生存方式。值得注目的是一般的知識分子不太關心農民的話，拿河植三與徐玉諾來說，他們對農民具有愛情、悲哀來寫作出作品。他們關注的就是農民本身、鄉村生活。總的來看，農民自古以來沒有權力、財力的最底階層。所以人文主義者應以人們爲主關心、探討。

### 【主題語】

신보부전, 군벌, 농민, 河植三, 徐玉諾

晨報副鐫, 軍閥, 農民, 河植三, 徐玉諾

Chenbao Fujuan, Warlord Era, Farmers, He Zhisan, Xu Yunuo

투고일: 2015. 10. 15 / 심사일: 2015. 10. 20~11. 5 / 게재확정일: 2015. 11. 10